

설 명절 앞두고 '과일 도둑' 판친다

“나주배 120상자 살게” 트럭에 실자 출행량

마트 가판대 꿀 상자 훔쳐 달아나기도

경찰, '가짜' 상품도 주의 당부

설 명절을 앞두고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선물용 과일이나 제수용품의 경우 바코드를 등으로 도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1시께 나주시 삼도동의 배 공판장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배를 대량으로 사고 싶다”며 중매상 이모(40)씨에게 접근, 자신들이 몰고 온 1t트럭에 나주배 120여 상자(시가 300만원 상당)를 실은 뒤 이씨가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에서 이씨는 “떨리서 왔다. 급하게 배를 사야한다기에 도와줬더니, 계산서를 끊고 나온 새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공판장에는 모두 25곳의 판매점이 입점해 있지만 관리자가 1~2명에 불과한데다, 하루 판매량이 1만 2000~1만3000 상자에 달할 정도로 많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지 않은 실정이다. 나주원에농협 관계자는 “별질이면은 뒤 이씨가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건도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상인들이 스스로 주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도리가 없다”며 울상을 지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가판대에 진열된 과일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모(59)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손모(여·40)씨의 Y마트 앞에 진열된 꿀(10kg) 세 상자를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달아나 혐의다.

경찰은 설 ‘대목’을 맞아 농특산물 공판장이나 재래 시장 등이 북새통을 이루는 틈을 노린 범행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외에도 매년 명절 때마다 빈집털이는 물론 ‘가짜’ 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을 바꾸거나, 진품과 섞어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잇속을 챙기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n@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

20대 남성이 가장 많다

권익위, 3년간 민원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인터넷·홈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인터넷 쇼핑 사기를 입는 비율은 여성(40.1%)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 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입금했는데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판매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경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인터넷 쇼핑물은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쉬운 반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홈쇼핑에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 물건을 샀는데 광고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일일 480원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전기난로를 샀는데 평소 5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60만원 가까이 나온 경우가 이에 속했다.

권익위는 인터넷·홈 쇼핑 피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광주 북구 중흥2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23일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 ‘사랑 나눔행사’ 도중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한 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산강 철새, 감염 여부 촉각 곤두

검역당국, 샘플 정밀검사 결과 조만간 나와-지역농가 비상



고창 동림저수지에 이어 충남 서천 금강 하구에서 폐사한 가창오리 3마리도 고병원성 H5N8형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만간 나올 영산강 일대 철새들의 AI 감염 여부에 지역 축산농가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지역 주

요 철새도래지에 서식하는 철새 분변 240개 샘플을 수거, 검역당국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일 ▲영암군 영암호·금호호 ▲나주시 우습재·영산강 일대 ▲순천시 순천만 ▲해남군 고천암호 등 전남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4곳과 제주 지역에서 비오리·청머리오리·흑두루미·청둥오리·알락오리·물닭 등의 분변 240개 샘플을 수거, 검역당국에 분석을 의뢰했다.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야생철새인 가창오리 10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죽은 원인이 고병원성 AI(H5N8)로 확진된 뒤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전남 지역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원인으로 야생 철새를 지목한데다, 철새 도래지 인근에 닭·오리 사육 농가 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방역 당국과 축산 농가는 조만간 나오는 정밀 검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또

23일부터 2차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향후 전남지역 26곳 주요 철새 도래지의 분뇨 샘플을 수거해 AI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사체 뿐만 아니라 조류의 분뇨로도 AI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1차, 2차 샘플을 수거해 각각 다른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암호를 찾은 가창오리의 것으로 보이는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됐으며,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해남, 보성 등지에서 겨울을 나던 철새에게서 AI가 검출된 바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7분 해질 17시 52분 달출 00시 30분 달몰 11시 45분

구름 낀 하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다.

광주	구름많음	-1/12℃
목포	구름많음	0/11℃
여수	구름많음	1/11℃
나주	구름많음	-3/12℃
완도	구름많음	-3/12℃
구례	구름많음	-3/12℃
강진	구름많음	-3/12℃
해남	구름많음	-3/12℃
장흥	구름많음	-3/12℃
순천	구름많음	0/13℃
영광	구름많음	-2/11℃
진도	구름많음	1/12℃
전주	구름많음	-1/12℃
군산	구름많음	-1/11℃
남원	구름많음	-4/11℃
혁신도	구름많음	5/11℃

〈오전〉바다 풍향 파고 김기치수 동파치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0m
〈오후〉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7:09 12:2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01:49 07:54
14:06 20:21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민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11	1/5	-3/6	-2/7	-2/8	3/6

일선학교 '짬통·냉동 교실' 벗어나나

전기요금 800억 추가 지원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이 예년보다 1000만원가량 추가 지원된다. 지난해 겪었던 '짬통·냉동 교실' 문제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비 명목의 금액을 800억원 늘려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기요금 납부에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대로 학교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4% 인하(약 300억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학교 전기요금이 내

려가면 올해 전체 전기요금 추가 지원 규모는 1100억원으로, 전체 학교 전기요금의 22%에 달하게 된다. 예년과 비교해 올해 초·중·고등학교 1개교당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셈이다. 지난 2012년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평균 전기요금은 연 5324만원이었다.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에도 중장기적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kWh당 108.8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kWh당 92.8원)보다는 비싸기 때문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논문없이 학위받는 산업 석·박사 제도 내년 도입

내년부터 논문 없이 기업에서 프로젝트 수행하고 학위를 받는 산업 석·박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산업현장의 최대 현안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산업 석·박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현

재 커리큘럼 구성 등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석·박사란, 입학 첫해는 대학원에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이후에는 특정기업에서 실무 과제를 수행한 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학위를 주는 일종의 ‘산·학 협력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연필뉴스

황칠나라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가맹점 및 판매점 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D&P황칠365 신상품

황칠시크릿 진액 기아타이거즈 공식후원상품

용봉점 **여수점** **쌍촌점**

현역력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데...

쌍촌점 광주 서구 쌍촌동 948-33 062-375-8233
용봉점 광주 북구 용봉동 740-1 062-418-8788

여수점 전남 여주시 좌수영로 372 미평동 1층 061-652-7177
화순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242-8 061-375-7188

황칠다남(주)
전남 광주광역시 광안로 10-3